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

2014년 5월 1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신성암 과장, 전중호 사무관(031-467-1866) / 제공일: 5월 16일(총10매)

동물복지 의식 높아지고 있다

- 동물의 등록·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·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◇ [동물등록] '13년 479천 마리 신규등록 '08~'12까지 217천 마리 등록
- ◇ [유기동물] 97천 마리 전년대비 2% 감소('12년 99천 마리)
- ◇ [실험동물] 1,967천 마리 전년대비 7.2% 증가('12년 1,834천 마리)
 - * 실험동물 축종의 다양화로 인한 마리수 증가
- ◇ [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] 신란계 46개소 전년 대비 10개소 증가('12년 36개소)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용호)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
- 이는 매년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각 시·도가 실시하고 있는 동물의 보호·복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된 것이며,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등록 현황과 유기동물 현황,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현황, 동물판매업 영업 현황 등이다.

□ '13년 기준 조사 결과

- 잃어버린 반려동물(犬)을 쉽게 찾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'08년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'13년부터 전국 실시(17개 시·도)로 695천마리가 등록[누계]되었다.

* '13년 479천 마리 신규등록으로 (인구 10만 이하의 시·군이나 도서벽지를 제외)

- 유기동물은 모두 97천 마리이며, 이중 개가 62천 마리(63.9%), 고양이가 34천 마리(35.1%), 기타 1천 마리(1.0%)였다.
- 시·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8천 마리(28.5%) 서울 11천 마리(11.7%), 부산 7천 마리(7.5%) 순이었으며 이는 발생 마리수는 사육 마리수에 비례하고 시·도의 유기동물 관리시설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.
- 유기동물은 분양(27천 마리, 28.1%), 안락사(24천 마리, 24.6%), 자연사(22천 마리, 22.8%) 순이었다.

- 처리비용은 유기동물 발생량에 비례하여 비용이 산정됨에 따라 유기동물 처리량이 많은 경기, 서울 순이고 전체 연간 소요 비용은 110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4.7% 증가하였다.

* 처리비용 : ('11)8,785백만원 → ('12)10,583 → ('13)11,076

-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361개소로 이중 지자체 직접 운영이 25개소(6.9%), 위탁 운영이 336개소(92.5%)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* 보호센터수 : ('11)339개소 → ('12)349 → ('13)361

-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42개소이며 이중 302개소가 운영 중으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지난해 총 1,967천 마리가 사용되었다. 이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그 축종이 다양화 되고 있다.

* 실험윤리위원회설치기관 : ('11)324개소 → ('12)338 → ('13)342

* 실험윤리사용마리수 : ('11)1,659천마리 → ('12)1,834→ ('13)1,967

- 동물판매업 신규등록은 523개소로 총 2,454개의 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동물장묘업은 부산 1개소, 경기도 4개소, 충남·북이 각 1개소로 총 7개소가 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.

* 판매업체수 : ('12)2,152개소→('13)2,454, 장묘업체수 : ('12)7개소→ ('13)7

-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농장 수는 46개소(586천 마리)였다.

* 축종별 인증제도 연차별 계획 :

산란계('12) → 돼지('13) → 육계('14) → 한우·육우·젖소('15)

□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

○ 전체 유기동물의 수는 2010년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.

* 유기동물수 : ('10)101천 마리 → ('11)96 → ('13)97

- 유기동물 처리방법으로 자연사(폐사 등) 또는 고양이의 방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분양 또는 안락사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소유자 인도는 등록제 확산 등으로 다소 증가추세이며 안락사율은 점차 감소해가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.

* 소유자인도수 : ('11)7,328마리 → ('12)8,734 → ('13)9,976

* 분 양 율 : ('11)26.1% → ('12)27.4 → ('13)28.1

- 개의 경우 유기동물의 63.9%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등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.

- 고양이의 경우 개 다음으로 많은 35.1%을 차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는 주민생활 민원 대상임에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.

○ 유기동물의 소유자 인도와 분양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반려견 등록제 확산과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

- 동물포털 정보사이트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을 접근이 용이하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서비스 제공 등 제도개선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.

□ 조사결과 활용

- 동물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보호관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고,
- 실험동물의 사용 증가에 따른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운영실태 적정성 강화 및 위반기관의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.
- 또한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연차적으로 축종을 확대하여 축산동물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
- 동물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독이 강화 되도록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- 동물복지는 국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각 시·도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용, 동물보호단체와 합동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.

※별첨 : 2013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 등 6매